

북한주민의 세계관연구: 폴 히버트의 세계관 모델의 적용

I. 서론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전략적인, 또한 교섭하는 정체성들을 수행하고, 파편화된 경험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어느 정도 통합되고 일관성 있는 참고의 틀이 존재하며,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줄 뿐 아니라 그것에 비추어 그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큰 이야기가 존재함을 가정하는 세계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어쩌면 어색한 일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련된 철학적인 논의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인류학적인 관점에서의 세계관에 관한 논의는 선교학 밖에서는 그리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본 논문은 한 문화의 세계관을 묘사하는데 있어서의 지나친 단순화와 환원주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폴 히버트(Paul Hiebert)의 세계관 모델을 적용하여 북한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한 다소 실험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는 세계관의 변화와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과 내재화는 선교와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히버트가 지적하는 대로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됨과 분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행위와 믿음의 내용,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라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2010: 22).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적 외양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혼합주의적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2010: 22). 세계관의 변화는 회심과 함께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심과 함께 삶의 방향성이나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의 전체적인 배열의 형태(configuration)는 바뀌었지만 세계관을 형성하는 내용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잭 메즈로(Jack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의 통찰을 빌려오면,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체계나 관점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기독교적인 신념체계와 가치, 관점들을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세계관과 의미체계 내에 추가로 포함시키거나, 혹은 기독교적인 관점들이나 세계관을 기존의 관점이나 세계관의 확장 혹은 정교화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다(2009: 22).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습득하는 과정에는, 한 사람이 특정한 문화나 집단에서 성장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그래서 당연히 했던 준거의 틀이나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중에 왜곡되었던 의미체계나 관점들을 교정하고, 기독교적인 것으로 대체·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 집단의 세계관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히버트의 문화인류학적 세계관 분석 모델이, 과거 북한연구 동향이 보여주는 편중성을 보완하고 최근 일상사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내면과 세계관의 유동성, 통시성을 보다 잘 관찰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가 가지는 “총체적 제도”의 성격으로 인해서(김태근, 1994: 168), 북한에 대한 연구는 주체사상과 같은 이데올로기의 분석과 정치적·경제적 거시구조를 파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사상, 규범과 가치체계의 내면화정도를 살피는 “위로부터의 시각”으로 “의도-정책-결과”라는 한 방향의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정영철, 2010: 153). 실제로, 북한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공산주의형 새 인간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체사상을 교육했을 뿐 아니라, 선전, 사상, 교육, 문화, 사회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계획·통제하여 그들이 주

제사상 혹은 주체 세계관(outlook)을 통하여 외면화하는 바가 주민들의 일상의 지식과 일상세계가 되게 하고, 궁극에는 주민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실체가 지도계층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본래적이고 객관적 실체로 다가가기로, 그래서 그 세계가 주민들의 주관에 내면화되기를 의도했고, 상당부분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위의 분석방식의 타당성을 전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다(Armstrong, 2003: 167; Berger and Luckmann 1967).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식담론과 국가의 의도성에 대한 단일한 목소리를 조명하는 어떤 면에서는 연역적 연구에 집중하다가, 그것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의 가능성을 주목하지 못하거나(박순성·고유환·홍민, 2010: 164, 165), 정작 북한 주민들이 연구의 그림에서 소외되거나(정영철, 2010: 153), 상부구조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지배와 수용만이 아니라 미시 저항과 긴장과 모순이 동시에 존재하고, 반복성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민감한, 일상이라는 독특한 장을 간과하지 않도록(김기봉, 2010: 127; 조정아, 2010: 407), “위로부터의 관점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시각”이 필요하다(정영철, 2010: 152).

이 주제가 설정하는 광범위한 연구 범위와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일상의 사회학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관점만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수용하며 히버트의 세계관 모델을 적용하여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의 세계관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논문들이 다루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일어난 변화들보다는 그 이전의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II. 히버트의 세계관 모델

히버트의 세계관 모델은 그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세계관 모델의 연구·분석 결과인데 특히 오픈러의 모델을 많이 수정한 것이다(Hiebert, 2010: 51). 따라서 오픈러의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면, 모리스 오픈러(Morris Opler)는 개별 문화들마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삶의 방식이 주는 맛, 느낌, 정신 혹은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1945: 198). 그 독특한 특성들은 그 문화의 양식 혹은 패턴에 기인한다. 모든 문화는 한정된 수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한 문화의 성격, 구조,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주제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표현은 어떠하며, 그 주제들 상호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945: 198). 그가 말하는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주제란, “명시되었거나 함축된 가정이나 입장”이며, “일반적으로 행동을 통제하거나, 어떤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되었거나 혹은 공공연히 장려된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1945, 201). 그 주제들은 정형화된 혹은 비정형화된, 그리고 상징적인 다양한 방식들로 그 문화 속에서 표현된다. 흥미롭게도 오픈러는 한 지배적인 주제에 대해 그 주제의 다양한 표현들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그 사회 속에 공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1945: 201). 곧, “제한하는 요소들”(limiting factors)이란 지배적인 주제의 표현들과는 상반되는 혹은 그 주제들을 견제하는 요소들로서, 지배적인 주제가 사회와 문화에 나타나는 표현의 빈도와 강도, 다양한 방식들을 통제하여, 그 사회가 한 쪽 극단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균형과 통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945: 201).

어떤 문화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지배적인 세계관의 주제와 그 주제를 제한하는 요소들을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주제(themes)와 반주제(counter themes)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히버트는 주제와 반주제와의 관계를 흑과 백의 범주나 대립관계로 보기보다는, 복잡하게 엮여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연속체상의 극점들이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 봄으로써, 오픈러의 세계관 모델의 역동성과 유기적인 특성을 장점으로 인정했다(Hiebert, 2010: 44, 45). 그러나 히버트는 오픈러 모델의 예시들이 평가적인 차원에만 집중되어 정서적인 차원들을 간과하는 점과, 그의 모델의 주제와 반주제가 각 문화의 자율적이고 내부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강점을 가진 반면, 다른 세계관과 비교할 수 있는 공통된 틀을 제시해주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을 지적한다(Hiebert, 2010: 46, 51). 또한 대부분의 세계관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공시적인 차원의 분석에 머물러 역사적인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통시적 차원의 분석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 지적한다.

위의 평가들을 바탕으로 오픈러의 모델을 수정하면서, 히버트는 세계관을 “한 집단이 실제의 본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본적인 인지적·정서적·평가적 전제들”(2006: 8)이며,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참되고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우주상”이라고 정의한다(Hiebert, 2010: 51). 그의 세계관 모델은 그러한 의미에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차원들을 포함한다. 또한 세계관의 내부적 관점에서의 오픈러와 같이 자율적 주제들을 고려하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관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간, 공간과 같이, 레드필드가 주장한 일곱 가지 주제들 중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화에 실제하고 다른 문화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객관적인 주제들(그리고 그에 대한 반주제들)도 함께 고려한다(Hiebert, 2010: 52, 54). 더불어, 세계관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간략히 살펴보면, 히버트는 세계관의 공시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의 여러 수준을 먼저 고려한다. 문화의 표면은 “감각적 수준”으로 관찰이 가능한 문화적 산물, 행동의 패턴, 언어, 기호, 의식 등이 포함된다. 그 아래에는 “명시적 수준”으로 “문화적 지식을 기호화하는 신념체계들”이 존재한다(2010: 64, 65).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마치 빙산의 수면 아래 존재하는 부분과 같이 문화에도 보이지 않는 구조가 존재하는 데 그것이 세계관이다(2010: 65). 세계관 내부에도 다양한 수준이 있으며,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범주의 형성과 기호, 논리, 인과관계, 주제와 반주제와 같은 것들이다. 주제와 반주제들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는 통합되어 존재하나 분석을 위해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Hiebert, 2010: 51). 그리고 세계관의 통시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야기, 특히 뿌리 신화에 주목한다. 비록 본 논문은 암시적 수준의 문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략하지만, 북한의 사람들의 세계관의 보다 확장된 연구를 위해서는 문화의 심층구조의 감각적 수준과 명시적 수준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앞서 언급한 일상의 중요성과, 세계관의 유동성과 통시성을 고찰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¹⁾

1) 감각적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아이들과 청소년, 성인 남성과 여성들의 매일의 일정을 포함하는 생활세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의례들, 학교의 의무교육시스템만이 아니라 사회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을 포함하는 명시적, 잠재적, 영의 교육과정들, 성분의 분류와 그것이 가시화되는 시간과 사건들, 배급제도와 정보의 통제, 감시체제, 예술과 문화, 명절, 김일성의 초상화에 대한 매일의 의식, 조선 소년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가입예식, 집단체조와 군중대회, 망경대와 같은 성스러운 장소로의 순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와 같은 감각적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명시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주체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인간중심의 세계관과 수령론, 불멸하는 사회·정치적 유기체론, ‘우리식’ 혹은 ‘조선식’ 사회주의이론과 주체사상의 적용, 그리고 개인숭배 종교로서의 주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III. 히버트의 세계관 모델을 적용한 북한 주민의 세계관 이해

히버트가 제시하는 세계관 모델의 공시적 특징과 통시적 특징을 비롯해서 기호, 범주와 같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 역사와 유교, 불교, 샤머니즘의 영향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히버트가 강조하는 세계관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주제들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세계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차문헌에 의한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고, 노동신문과 북한의 문학서적들을 참고했으며, 관련된 탈북자들과의 면담내용들을 반영하였다.²⁾

1. 인지적 주제들

인지적 주제들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실제의 본질에 대한 가정들”이다(Hiebert, 2010: 98).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세상이 어떠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누구고, 무엇이 해결책인지와 같은 질문들에 답을 제공해주는 설득력구조에 관한 것이다(Hiebert, 2010: 57; Keller, 2012: 33-36).

시간

북한정부는 특히 역사를 강조해 왔다. 사람은 운명의 주체이고, 역사를 만드는 자이며, 공산주의 정권은 역사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사회의 가장 진화된 형태는 사회주의 사회라 믿기 때문에, 북한의 역사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국가가 되도록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³⁾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의 시간은 과거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이다.

인민들의 삶은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되고 구조화되어져 있다. 사상적 선전과 교화와 문화,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human remolding programs)이 사회총체적으로 주민들을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실행되었다(Kim, 1979: 2). 암스트롱(Armstrong)은 “북한은 매우 통제된 사회로서 매일의 삶도 전쟁 중에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열병하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묘사했다(2003: 218). 북한 사회의 무장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그리 어렵거나 낯설지 않았던 것은 그 모습이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전쟁 시 전 나라를 동력화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Armstrong, 2003: 217).

1997년에 북한은 주체라고 하는 “왕조력(dynastic calender)”를 사용하기 시작했다(Oh and Hassig, 2000; Belke, 1999). 김일성이 태어난 해(1912년)로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달력에 따르면 2014년은 주체 103년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도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2) 필자가 2012년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탈북민 18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준거의 틀과 관련하여 연구했던 면접 자료를 일부 사용하였다.

3) 현재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2009년 4월 개정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라는 내용을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제29조)로, 그리고 교육의 목표에서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를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43조)로 수정한 것을 고려할 때에, 김병로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노선은 국가의 이념으로 고수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포기 혹은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2010: 3).

에티오피아는 1년이 13개월인 에티오피아만의 달력과 시간의 계산법을 가지며, 이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을 갖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달력과 달리, 주체력은 조선시대의 왕조력을 본뜬 것으로, 김씨 왕조의 이상화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Oh and Hassig, 2000: 3).

이기영과 그 연구팀은 탈북인들을 통해 북한의 시간실태를 남한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북한 사람들의 시간활용의 확실성과 적은 휴일, 여가시간을 즐기는 방법의 단순·수동성을 발견했다(이기영, 이기춘,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양숙, 최연실, 1997: 15, 16).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 못지않게 평상시의 노동시간, 총화 및 학습, 휴일에 발생하는 노력동원,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가사의 부담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남한 사람들과 달리 시간에 쫓긴다는 인식이 없는 차이이다. 연구자들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일과 경쟁에 쫓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자율성과 선택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바쁘고 피곤할 수 있으나 외부에 의해 삶이 통제되어 주어진 삶의 스케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설명한다(이기영 외, 1997: 16).

공간, 그리고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 조선왕조는 일본과 다르게 서구화를 거부했고,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로 불리곤 했을 정도로 동아시아를 넘어 더 넓은 세계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이후로도 은자의 나라로 남아 있었다.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제했고, 정권이 정보를 독점했다(Armstrong, 2003:188).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나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북한을 넘어선 세계라는 공간은 다소 제한된 인식의 영역으로 다가오리라 생각된다.

노동신문을 검토해 보면 신문의 마지막 면은 각 나라의 뉴스들을 담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는 거의 매일 등장하고, 쿠바와 이란과 같은 우방 국가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여러 나라의 소식들은 사고소식과, 세계화에 대한 비판,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부패성, 경제위기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이 세계가 냉전시대와 같이 여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고 믿게 하고, 세계화를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이라 하여 비판하며, 북한이 세계의 중앙이라고 믿도록 선전하고 있다. 2000년 11월 1일과 4월 19일의 노동신문에도 “조선을 축으로 새로이 알고 있는 세계의 지각변동,” “태양절은 인류공동의 명절 여러 나라 당수들이 강조”와 같은 사실이 실려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발행된 그러한 선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북한 사람들은 북과 남을 포함하는 “아버지의 땅 혹은 조국”이라는 공간에 집중한다. 북한은 6.25전쟁을 “분열되지 않은 조국해방전쟁(undivided Fatherland liberation)”이라는 표현을 쓴다(Choong, 2005: 322). 땅과 백성이 동질적 공동체로서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된 주제를 구성한다. 조국 혹은 남과 북을 함께 칭하는 한반도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정치·사회적 공동체가 살아가는 공간이다.

개인과 집단

북한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보면, 북한 정권은 집단주의적 삶을 격려한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집단주의적 삶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과 같은 집단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Hunter,

1999: 37). 예외가 없이 모든 북한주민들은 여섯 살 때부터 남은 평생 동안 가족이라는 집단 외에 또 다른 조직에 속하게 된다. 외부의 시각에서는 동일한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유사하게 본다(Hunter, 1999, 38). 개별성이나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이 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실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다(Kim, 1984). 그러나 북한에서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 중 하나로 가르쳐지는 자주성조차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수준에서 정의된다(Belke, 1999: 10). 김정일은 자주성을 “집단적 사회적 삶의 특성에 대한 주체개념으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삶과 실천에 대한 요구와 성찰”이라고 정의한다(Kim, 1985: 4-5). 이러한 집단에 대한 우선성은, 개인에게 생물학적인 생명 외에 정치사회적 생명이 존재하고 한다는 사상을 통해 잘 드러나며, 후자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생물학적인 생명의 희생은 영예로운 것으로 강조된다.

암스트롱(Armstrong)은 북한 정부의 시도가 “북한주민에게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들을 창조하기 위한 시도”라고 개념화한다(2003: 213). 그 주장은 “모든 심장이 하나와 같이 박동한다”라든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와 같은 슬로건들을 통해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Kim, 1973: 29). 당의 교훈은 그 의도를 분명히 하여서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이기주의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조직과 집단적 삶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 그리고 당의 유익을 위한 혁명적 투쟁에 자신을 헌신하도록 지도한다(Kim, 1973: 29).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인식적인 주제는 평가적 주제와 병합된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구별되지 않는 지양해야 할 삶의 방식이며, 집단주의가 사회적 규범이 된다.

한 예로, 필자가 면담을 했던 탈북인 중 한명은,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인 유익을 포기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예쁜 아가씨가 장애인과 결혼하고 하는 북한 사회의 미덕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체제와 공산주의의 특정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사회가 사회다워지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 북한 체제에 대한 혐오를 느끼고 있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도 제 안에 남아있던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 회개와 거듭남의 한 기점을 통해서 가치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라온 문화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나에게 형성되어온 기질이나 성품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제 안에 거듭남과 함께 성경을 배우면서, 집단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형성된 많은 기질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 희생과 잘 부합되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습득한, 곧 개인이기주의가 아닌, 자신보다 집단을 더 우선시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적 가치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헌신, 희생과 맞물려서 더 확장되어...

북한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적 미덕을 분리하면서, 그는 사회주의의 가치체계 가운데 물질과 개인의 이익에 앞서는 도덕과 깨끗한 양심이라는 평가적 준거의 틀을 이야기했다.

개인주의는 개인에 초점을 두는 세계관으로서 개인의 목적, 개인의 독특성, 개인의 통제를 강조하고, 대신 사회를 주변화(peripheralize)한다. 이에 반해 집단주의는 집단들이 개인들을 묶어주고,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가정으로서, 집단주의적 세계관 내에서 개인은 단순히 사회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Williams, 2003: 370-371). 윌리엄(Bryant Williams)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세계관의 차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개념에 있어서, 집단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사회 지향적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관계를 위한 필요 혹은 욕구와 거절에 대한 민감함이 더 강하다. 건강과 정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인 통제나, 자유, 자기만족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는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은 당황스러움에 더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맥락화된 혹은 고맥락화된 정서들을 가지고 있다. 집단주의적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상황적인 요소들에 돌리는 반면에,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기질적인 요소들에 귀속시킨다. 소통과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집단주의적 사람들은 간접적이며 고맥락적 소통방식과 동화와 협상을 선호하는 데 반하여,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이며, 직접적인 소통방식, 직면과 중재의 방식을 선호한다(Williams, 2003: 371-371).

흥미로운 것은, 북한과 남한이 모두 집단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주의적인 성향 역시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두 세계관의 주제들의 역동성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사람들의 경우 집단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한 사람들에 비해 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한다(이민영, 2009: 103, 104).

논리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논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 논리가 있다(Hiebert, 2010: 78). 히버트는 근대주의에서는 “추상적 연산논리”나 명제적 논리가 보편적이지만, 공동체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아날로그식” 혹은 “관계적 논리”를 더 사용한다고 설명한다(2010: 78).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를 고려할 때에도, 그들에게 더 기초적인 논리가 있지만, 이들도 여러 상황들에서 다른 논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지나친 일반화나 획일적 적용과 변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Hiebert, 2006: 23).

북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흑백의 논리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진법적인 논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과 같아서, 모든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진실과 거짓, 삶과 죽음, 0과 1로 나눈다(Hiebert, 2006:23-24).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우방과 적이 분명하다. 이들은 그들의 편이 누구이고, 그들이 편이 아닌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미워해야 할 사람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긋는다. 그들은 엄격한 윤리 규범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학습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친다(유은희, 2012).

다른 한편으로 북한 사람들은 살아가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논리구조로 보이기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반되고 양면적인 두 가지 원리들을 동시에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균형(disequilibrium)은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 여성들은 그들의 지위가 남성들에 비해 하급하다는 것은 당연시하고 남편을 섬기며, 사실 그들이 나가서 비슷한 양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집안일을 전부 해내고, 중요한 결정들이 가정의 머리인 남성들에 의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다른 한편 그들은 또한 정권이 가르치고 선전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믿고,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혁명적 과

업에 동등하게 공헌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원리와 실재들이 여성들의 마음에 충돌이나 갈등 없이 수용되고 있다. 그 실재들을 분리해서 수용하고 있고, 서로 다른 실재들을 그 모순에 의해서 압도당함 없이 살아내고 있다.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라고 믿는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들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창조하고, 스스로의 의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운명의 주인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고 복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이 당과 수령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되며,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행동이란 순응과 복종이다. 노동신문의 한 사설에 따르면, 지도자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은 인민들이 역사의 주인과 혁명의 동기부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혁명의 힘으로 조직되고, 수령인 지도자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혁명적인 과정도 자발적으로 착수할 수 없고,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에게 필요한 훈령을 내려주고, 그들 앞서서 길을 치워줄 때에야 비로소 그들 운명의 주인으로 혹은 역사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Belke, 1999:31).

결국, 주체사상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주요 사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사람들은 ‘주인’ 혹은 ‘주체’라기 보다는, 당이 내리는 집단주의적 결정에 그리고 수령의 결정에 ‘순응하여 따르는 이들’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이라기 보다는 지도자 중심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양면가치 혹은 반대감정의 병존이나 모순이라고 하는 느낌들에 의해서 압도당함이 없이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길태근은 “북한의 인민대중은 이중적인 인성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민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1994: 159). 위와 같은 이중적 혹은 변증법적 논리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정권의 감시하는 눈으로부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저항을 표출할 수 없는 지배체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불가피하게, 혹은 그 구조 속에 적응되어 살아가다 보니 습득된 것일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혹은 사회의 각 부분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과 반 같은 서로 다른 원리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에 맞게 적응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방식에 영향을 주는 논리는 결국 실용주의 혹은 현실적응주의 논리로 보인다.

뿌리 은유

뿌리 은유는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뿌리 신화가 실재에 대한 이야기이며 통시적인 관점으로부터 실재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뿌리 은유는 실재의 구조들과 실재가 움직이는 방식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Hiebert, 2006: 50). 페퍼(Stephen C. Pepper)는 뿌리 은유를 정의하기를 “세계관에서 사용되는 근본적인 유추”로서 세계를 해석하는 기초라고 설명한다(Super & Sara, 2003: 5; Pepper Internet Resource). 그는 네 가지 세계관과 그 각각에 관련된 비유들을 정의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계장치(mechanism)와 유기체(organism)이다.

북한의 세계관과 뿌리 비유는 유기체와 기계장치 모두와 가깝게 느껴진다. 먼저, 북한의 세계관은 유기체로, 그리고 “역동적인 유기체적 전체” 혹은 각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 비유할 수 있다(Super & Sara, 2003: 6). 실제로, 북한 사회가 스스로를 묘사하는 비유들은 가족, 공동체, 친족, 혹은 살아있는 몸과 관련된 것들이다(Armstrong, 1999: 220-222; Belke, 1999: 22). 가족의 비유에서, 지도

자, 수령은 아버지로서, 노동당은 “어머니 당”으로서 묘사된다(Armstrong, 2003: 98). 지도자와 당은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녀들인 인민의 의심 없는 충성과 사랑, 정서적인 애착은 당연시된다. 북한 정권이 처음 권력을 규합하고, 군혁갈 즈음에 가족이라는 끈이 강했다라면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나, 해방과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가족들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많은 가족 구성원들을 잃은 상태였다. 이때에 김일성은 출생과 죽음, 결혼, 가족 구성원이나 친족관계로의 입양과 같은 기록을 남기는 호족제도를 폐지했고, 북한 주민 전체를 김일성이라는 “혁명 가계”를 따르는 한 가족이 되도록 하였다(Armstrong, 2003: 226).

살아있는 한 몸이라는 비유는 황장엽이 1980년대에 발전시킨 “수령론”에 포함되어 있다(Belke, 1999: 22). 그 비유에서 리더는 “살아있는 몸의 두뇌”에 해당하고, 당은 “그 유기체의 신경”이며, 그 살아있는 몸이 인민들이다(Belke, 1999: 22). 그것은 또한 “한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다(Armstrong, 2003: 223). 당과 인민들은 혈연관계로서, 사람들은 하나로 숨을 쉬고 하나로 행동한다(Cuming, 2004: 171).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북한 정권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실제에 대한 유기체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각인시켰다. 암스트롱(Armstrong)은 북한의 그러한 비유들은 더 이상 “비유적”인데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자그대로의 실제”(a concrete literalness)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2003: 222).

둘째로,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은 기계적 세계관으로서 기계라는 뿌리 비유를 가진다(Pepper Internet Resource). 이 비유는 전체의 부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 집중하며, 어떤 시스템 내에서 모든 사건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원인 관계들의 조합이다(Super & Sara, 2003: 6). 실제로 기계적 세계관은 유기체적 세계관과 대립되지만, 통합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리 다르지 않다(Super & Sara, 2003: 6). 앞서 언급한 북한 정권이 이론화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가족과 같은 유기체적 비유들을 제외하고는, 북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식은 유기체보다는 기계를 더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철저히 계획되어 시행되는 문화와 교육프로그램, 물리적 환경들과 사회 구조, 경제적 사회적 통제 시스템들을 고안하여 새로운 사회뿐 아니라 인민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려고 했다. 아이들의 로봇과 같은 얼굴표정과 감정 표현과 몸짓은 북한 정권이 성취해온 결과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리고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조직에 속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도로 통제된 삶의 방식이나, 계속되는 전쟁의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성된 전쟁과 유사한 사회의 모습들, 그리고 사상 교육과 효율성을 위해 일터에서와 대중문화에서 드러나는 군대와 작전 용어들의 사용은 그러한 기계적 세계관을 조성하는 여러 요소들이다(Armstrong, 2003: 165).

2. 정서적 주제들

각 집단의 세계관은 기쁨, 분노, 한, 슬픔, 경외심과 같은 감정, 상호관계나 삶에 대한 정서, 아름다움과 추함과 같은 미학과 예술의 취향과 표현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히버트는 그러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정서적 주제들이라 표현한다(2010: 114, 115).

금지, 영예, 자부심

노동신문을 읽다보면 지도자와 당과 나라에 대한 강한 “금지”와 “영예”와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북한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정서적 주제들 중 하나이다. 지상천국을 이루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공산주의 정권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 슬로건은 거리에

서 볼 수 있고, “세상의 아무도,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envying on one and nothing in the world)”는 노래에서도 드러난다(Kim, 1973: 10). 북한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과 자기 나라가 구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도입이라는 중국의 타협,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 후에도 살아남은 유일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받는다. 이러한 자부심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크다는 조각이나 건축물들보다 더 크고 높은 조각이나 건축물들을 만들고 있는데서도 나타난다. 평양의 개선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닮았고, 김일성 광장의 김일성주석 청동상은 60미터에 이르며, 주체탑의 높이는 170미터에 이른다(Belke, 1999: 190, 188).

한편으로 북한정권은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 타락한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까지 그 나라에 아무도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일이 없는 사람이 없었고, 마약이나, 술이나, 비정상적인 갈망에 중독된 사람들도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선포하곤 한다(Cuning, 2004: 149). 실제로 탈북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공지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숭고한 목적으로 알고 살아왔음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지도자와 당의 영도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공지와 영예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부심과 공지, 영예는 정서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규범적이고 평가적인 주제이기도하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창작소설과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서적, 감정적 표현들을 살펴보면, 인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는 지도자와 당의 영도는 그들에게 “목이 메고,” “가슴 뜨겁게 느껴지며,” “눈시울을 뜨겁게”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충성”과 “효성”의 맹세이고 실천임을 반복해서 표현한다. 그러나 심각한 기근이 있었던 1990년대 후반 이후 변화된 상황들과 외부 정보의 유입은 그 자부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랑과 증오, 두려움

국가적 자부심과 함께 공지, 영예, 충성, 동지애와 같은 정서적 주제들이 자신의 나라, 조국과 존경하고 친애하는 수령 김일성, 김정일, 당과 인민들 서로를 향한 감정들로서 장려될 뿐 아니라 또한 감지할 수 있다. 지도자와 당과 인민은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이나 친족의 용어들로 표현된다. 북한 사람들을 서로를 동료로 생각하여, 상급자나 나이가 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지”라 부르며, 어리거나 동급의 사람들에게는 “동무”라 부른다. 모두가 친구나 동역자라는 의미를 갖는다(Armstrong, 2003: 161). 동지에는 공산주의의 미풍 중 하나로 강조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또한 미워하고 혐오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가르친다. 일본사람들과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다. 북한에서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 미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뚜렷이 구분하며, 그 대립이 현저하다. 1947년 3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의 교훈에 따르면,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치·이데올로기적 교화는 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들이 북한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에 대해서 각인시켜야 하며, 공화국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며, 적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Armstrong, 2003: 101).

앞서 인지적 주제들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북한에서는 친구와 적에 대한 경계가 분명하고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 표현해야 하는 감정도 분명하다. 정권은 그러한 극단적인 감정적 주제들을 일관성 있게 주입하고 강화한다. 특히 6.25전쟁과 식민지 기간동안 조선인들에 대한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동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생생하게 혹은 과장하여 표현하고 가르쳤다. 대조적으로 남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포이면서 동시에 적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탈북민의 수가 다수가 발생하고

정보의 유입이 더 많아진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그리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아동문학 2005년 6호에 실린 변제전의 창작 단편소설 「암전이」에서도 미국 예배당주인을 향한 어린 아이의 감정을, “감지 못한 두 눈에 끝맺지 못한 절규와 풀지 못한 원한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비록 자그마한 두 주 목이었지만 철퇴처럼 으스스하게 틀어쥐었다. 거기에는 복수! 무자비하고 철저한 피의 복수, 복수의 당부가 담겨져 있었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나라와 수령 혹은 지도자와 당을 사랑하고, 사랑하도록 요구되지만, 동시에 그 사회에 만연한 두려움 역시 북한의 지배적인 정서적 주제라 할 수 있다. 헌터(Hunter)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반 신(semi-god)”으로 믿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하나는 김일성의 진정한 인기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1999: 27). 사람들은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많은 눈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행동이 보고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Park, 2002: 68). 감시문화뿐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 두려움을 갖게 한다. 전우택과 그 연구팀은 외상경험과 외상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살면서 정치적인 비행으로 인한 공개처형과, 고문, 징벌, 언어적 폭력 등을 목도하거나, 들었거나, 경험한 일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전우택 외, 2005: 151). 그러나 이 두려움은 다른 감정들과 달리 교육이나 노동신문, 문학작품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외면화 혹은 주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이고 실제적인 정서이다.

‘역센 의지(iron will),’ 신념과 인내

한국 역사는 고난과 방어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열강의 틈에서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에 대항하여 주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던 이야기들은 북한 뿐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의 이야기이다. 의지와 인내는 나라를 방어할 때에도, 그들을 압제하는 시스템에 의해 야기된 고난을 견디는 데에도 필요했던 정서였다.

북한정권은 의식화 혹은 혁명정신이란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신문과 북한에서 나온 여러 잡지들을 읽을 때에도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1994년 5월 10일과 1월 2일의 노동신문만 읽더라도 “불굴의 신념과 의지,” “인민의 역센 의지와 신념을 꺾을 수 없다,” “강철의 의지와 신념,” “결사관철의 정신,” “확고한 결심과 의지,” “철저한 관철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과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김일성의 우상화 혹은 신격화와 더불어 철의 의지에 대한 강조는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기도 큰 불평 없이 고생과 배고픔을 견디게 하였다(Lee, 2001:10). 전통적인 유교적 신념에 근거한 “영적인 결단(spiritual determination)”은 철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욕주의적인 오래 참음과 견뎌움을 낳았다(Park, 2002: 168). 동일한 정서는 고난의 행군시절만이 아니라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목표로 한 시기에도 지배적인 주제로 계속 등장했다.

희망, 낙관주의, 재미

성분으로 인한 상승이동의 한계와 통제되고 궁핍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절망이나 냉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북한주민들도 있지만, 그러한 정서만이 지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출판되

는 글들을 살펴보면 강한 신념과 의지로 헤치고 나아가야 할 현실을 묘사하고는 있지만, 지배적인 정서는 희망적이고 낙천적이다. 헌터는 북한의 아이들을 “생기있고, 활발하고,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lively, high-spirited, happy, and self-confident)”이라고 표현한다(Hunter, 1999: 48). 물론 고난의 행군이후 꽃제비들의 영상을 떠올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힘들 것이고, 앞선 이미지보다는 헌터가 연이어 언급하는 모두가 획일적으로 행동하는 “로봇과 같은”이라는 표현에 더 동의할 것이다(1999: 48). 이들의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희망에 찬 모습이 꾸며진 모습만은 아니다.

노동신문이나 창작 소설들이 보내는, 미래가 “밝고,” 미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선전이요, 위로부터의 관점을 대표하지만, 그러한 정서의 내면화 정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의 주민들의 정서 중에는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해 희망을 걸고, 일상의 삶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살아갔던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한 탈북인은 북한의 조직생활 가운데 느꼈던 일상의 재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 여성들과 이야기해보면 거기서가 더 재미있었어요. 비록 못 먹었지만. 비록 도시락에 죽 싸가고, 옥수수 싸가고, 그 안에 노래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는 거죠. ...북한 규율 안에서 재미있거든요. 같이 가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놀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정권의 기만에 대한 의식이 아직 없어서일 수 있으나, 일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특히 미래가 주는 정서가 스트레스나 염려라기보다는, 당이 선전하고 약속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주는 낙천성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3. 평가적인 주제들

평가적인 가정을 혹은 규범적인 주제들은 “미덕, 표준, 도덕, 예절” 등과 같은 개념들과 관련되어,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이 참과 거짓이고, 옳고 그르며, 좋고 싫은지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잣대가 되어 사회적·도덕적 질서를 세워준다(Hiebert, 2010: 116).

귀속과 성취 그리고 위계와 평등

트롬페나스(Fons Trompenaars)에 따르면, 성취를 중요시 하는 문화에서는 교육이든, 부든 그 사람이 최근에 성취한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반면에, 귀속적인 문화에서는 한 사람의 지위가 출생이나, 친족, 성, 혹은 나이 혹은 그 사람이 누구를 알고, 어느 학교 졸업생인가와 같은 관계적 연결망들에 의해서 결정된다(1998: 9). 한국 문화는 역사적으로 성취중심적인 문화라기보다는 귀속중심적인 문화였고, 평등하기 보다는 위계적인 문화였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에서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구별된 네 수준의 사회적 계층들이 존재했던 것과 같다.

북한은 철저한 사회계층화와 사람들 사이의 엄격한 사회적 위계질서와 그 수준의 차이에서 볼 때에 조선시대의 사회와 많이 닮아 있다. 북한 정권은 “철저한 사회적 혁명”을 수행했고, 그 결과로 사회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가장 머리가 되었고, 가장 상위계층에 해당하던 사람들은 사회의 밑바닥에 위치하게 되었다(Cuming, 2004: 131). 초기에는 실제로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이 높은 공무원이 되고, 군대의 지휘자가 되었다(Cuming, 2004:132).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계층보다 더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과 따라오는 후손들에게 상향계층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출생한 장소와 그 사람이 졸업한 학교

는 매우 중요했고, 그러한 요소들이 사람들을 묶어주었다.

북한 정권은 결국에는 사회적 평등을 조성, 장려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대조되는 양상으로, 독특하게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한국적 혹은 조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Armstrong, 2003: 161). 호프스테드(Hofstede)는 평등과 위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권력거리간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권력거리간격이 넓은 사회들의 특징들이 북한이라는 사회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중앙집권이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상사가 선정을 베푸는 전제군주 또는 "선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며, 하급자와 상사와의 관계가 감정적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옳고 선하게 여겨지고, 권력은 전통이나 가족, 카리스마 혹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등에 근거한다는 특성들이다(Hofstede, 2005: 59, 67). 실제로 북한의 문학이 표현하는 지도자는 호탕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지만, 친필서한을 보내는 등 세심하게 인민을 돌보는 사랑과 온정이 많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성취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북한사회는 개인들 간에 혹은 집단 간에 경쟁을 조장한다(Armstrong, 2003: 162). 공장, 광산 혹은 군대에서는 생산성과 성취도에 따라서 임금이나, 승진, 장려금을 제공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트롬페나스나 오폴러가 지적하는 대로 한 주제가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그와 대립하는 주제를 배제한다면 그 사회는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도 지배적인, 귀속적 사회의 특성만이 아니라, 그와 상반되는 주제로서의 성취와 공로도 인정하는 문화적 표현을 인정하여, 불평을 잠재우고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고 계층의 상승이동에 대한 희망을 근절하지는 않는다(Armstrong, 2003: 111).

남녀평등과 가부장주의적 남녀차별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보다 더 유교적이다. 어른들을 공경함과 사람들 사이의 예의, 효,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역할구별에 있어서 유교적인 관습을 견고하게 유지해왔다.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성과 성역할에 대한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겪는 이질감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시 다루지고 있다.

민무숙과 안채희(2001; 2003)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면담하여 북한 주민들의 여성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들의 발견에 따르면, 가정에서 성역할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부모의 역할 모델을 내면화한 것으로 보인다(2001: 165).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해, 초반에는 봉건적 유습이라 하여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청산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후에는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를 대가족화하기 위해서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적 요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김혜영, 2000: 2, 6). 북한정권이 외면화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동등하고, 혁명을 위한 투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사회화를 통한 암시적인 가르침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와 다르지 않은 점에서, 이중성을 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후자가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북한의 세계관에서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집 밖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 일하며, 남자는 가족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지도하며, 여자는 그 결정을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민무숙·안채희, 2001: 166). 여성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고, 남편과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다(김혜영, 2000: 10-13; 민무숙·안채희, 2001: 165). 남존여비의 유교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든지 “남편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전통적이면서 일상적인 표현들 속에 잘 담겨져 있다(민무숙·안채희, 2001: 204, 165). 전통적으로 북한 여성들은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그리 반감을 표시하지 않았고, 남성들은 부인을 꾸짖는 말에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옷 입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들도 전통적인 여성상을 근거로 당연시되고 있었다. 여성들이 해야 할 일과 남성이 해야 할 일의 구분도 명확했다(민무숙·안채희, 2001: 168).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표현들도 여성이 총명하고 영리한 것을 격려하지 않고, 남성에게 복종적인 지위에 머물도록 제한하는 남성위주의 사회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은 같은 학급의 학생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말을 걸때에 신중한 표현들과 존대를 사용할 것이 기대되었다(민무숙·안채희, 2001: 205). 북한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학교 밖에서 어울리는 것을 금했으며, 결혼 전의 성관계는 허락되지 않았고, 이혼도 제한했다(Hyun, 2004: 163-164).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역할구분이 북한의 경제쇄퇴와 함께 변화되고 있다. 그 현상은 중국으로 탈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을 떠나 중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대꾸하며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던 탈북민이 있었다. 북한에서도 장마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게 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노동과 노동계층의 성스러움과 순응

일은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것으로 간주되었다(Kim, 1973: 27).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가장 가치 있는 구성원이라 고려하는 사회주의 사회의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선전과 슬로건, 이미지, 운동,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의 가치는 표현되었다. 노동을 통해 강하고, 자립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유일한 당이 “조선 노동당”(Korean Worker’s Party)인 것처럼, 북한의 유일한 신문의 이름 역시도 “노동”(노동신문)으로, 노동자는 매우 고양된 계급이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노동을 사랑하도록 교육받는다. 집안일은 노동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와 겹쳐서 부담해야 되는 이중적인 일의 양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가정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공식담론과 다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핵심 지배계급은 노동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가진 정치적인 지배계급의 지위는 형식적인 데 머무른다(김태근, 1994: 158, 171). 기능성에 있어서 노동자들보다 사무직과 같은 중간계층과 고위 관리직이 행정상의 분배에 있어서 더 나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 사회구조는 이중적 가치체계의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사실상 노동을 사랑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태도와 민주성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태근, 1994: 158). 노동은 사회체제와 가치체제에 대한 순응이요 적응의 의미로만 인식될 수 있다.

자발적인 의사주의 대 강제(voluntarism vs. compulsion)

북한정권은 자발적 의사주의에 가치를 부여한다. 북한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진정한 복종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 정권은 전 사회와 사회적 통제 시스템을 조정하고 프로그래밍하여 지도자와 당에 대한 순응과 복종이 강제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지각되게 하였다(Park, 2002: 72; Armstrong, 2003: 211).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발견학습방법(heuristic methods)을 권장하며, 성인교육의 경우에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따르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의 영도에 따르는 것이 강제가 아니라 감화와 설득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믿게 한다.

고도의 감정 표현 대 감정의 통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을 억제해 왔다. 기쁨, 분노, 슬픔의 극단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은 낮은, 혹은 천한 계급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의 급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교육받았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극도의 표현들을 숨기는 것이 덕으로 간주되었다. 북한 사람들은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된 남한 사람들에 비해 더 유교적인 전통을 보존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적 표현과 관련된 규범들은 전통적인 그것들과 그리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표출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눈에 띄는 현상들은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집단체조나 군중대회에서 울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목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환호,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의 감정의 폭발과 눈물은 관찰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헌터(Hunter)는 1980년대에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어부의, 북한 정권이 그에게 눈물을 흘리는 법과 어떻게 몸짓하고, 얼굴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연습하게 했다는 증언을 예로 들면서, 북한 정권이 해외뿐 아니라 북한 내에서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개인 우상화 종교를 선전하기 위해 감정의 표현을 조정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그들의 정서가 진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서, 그러한 표현들은 감정이 고조된 사고방식이나 태도의 결과("emotionally charged mindset")라 볼 수 있다(Park, 2002: 72). 그런 면에서 북한주민들에게 감정의 풍성한 표출은 승인되며, 분노나 슬픔, 기쁨의 감정이 절제되어 표출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크지 않아 보인다.

사상과 '청빈' 대 물질적 조건들 (Ideas and 'Clean Poverty' vs. Material Conditions)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물질보다는 관념을 더 가치 있게 여겨왔다. 물질적 부에 대한 탐욕은 하층계급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발견되는 태도로서 경멸하였다. 북한 사람들은 물질적 조건들보다는 관념이나 정신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은 경제적이거나 물질의 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신념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왔다(Park, 2002:166).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도록 행동하게 유혹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청빈'이 부패보다 낫다는 신념을 장려했다(Park, 2002: 165).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 물질적인 번영에 의해 판단되는 일반적인 신념과는 대조적인 것이다(Park, 2002:166).

북한은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적 가치로 삼는다. 1993년 12월 4일 노동신문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은 사상의 대결인 동시에 인간의 윤리도덕, 생활양식 분야에서의 심각한 투쟁이다"이라고 강조하면서,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썩어빠진 패륜패덕이 지배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복귀된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력사에 의하여 배척당한 온갖 비인간적인 악덕과 불의가 되살아나고"있는데 반해서 "오직" 북한에서만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자주적인 인간의 참된 삶의 보람을 찾는 숭고한 미풍이 발현되고 있는 것은 참으

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기술한다. 이들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방침과 공산주의 미풍확립이라는 기치 아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집단주의 행동 양식 뿐 아니라 “량심화,” “도덕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올바른 사회가 어떠해야하는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가 분명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상이 분명한 사회였고, 개인의 삶이었다고 추억하는 탈북민들이 있었다.

물질보다 사상을 우위에 두고, 청빈을 숭고하게 여기는 신념은 북한 사람들의 사고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필자가 면담을 했던 탈북인 중 한 명은 자신이 중국에 처음 나와서 북한에서 이상적인 사회와 도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 사회들을 TV와 실제로 겪은 문화충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을 언급한다. “북한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끝까지 일에 충성하는지, 뭐 여기는[남한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많잖아요. 거기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어도 무조건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도 감사하게. 말하자면 김일성의 유골을 관장하는 만수대금수성의 사단과 같은데 동원되면 7-8년씩 동원되요. 그것 끝나고 나면 트렁크 하나에 옷감, 양복을 지을 옷감을 주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긍지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같으면 사회가 뒤집어 쫓쫓(웃음)” 현재 남한과 비교하며,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이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노동에 임했던 시기를 떠올린다.

신화들

히버트는 신화를 사람들이 궁극적인 실재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믿는 큰 이야기들, 메타 내러티브를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한다(2006: 72). 신화는 “허구와 공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의미”로서 “역사의 뿌리에 해당하며,” 그 이야기에 근거해서 “역사와 인생의 이야기들이 해석되는 거대한 내러티브”이다(Hiebert, 2010: 54). 신화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되고 영원하고 영구적인지를 일러 줌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일상 세계에서의 경험, 감정, 관념에 우주적 질서, 정합성, 의미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참된 것으로 믿는 초월적인 이야기이다”(Hiebert, 2010: 54). 신화는, 동시에, 각 “공동체의 기억”이며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Hiebert, 2010: 54).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통일성과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역사의 일부를 다시 쓰거나 선택된 부분들만을 가르쳤다. 더 나아가서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의 사고로부터 모든 신념체계와 종교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고, 주체를 유일한 국가종교로서 제정했다. 그 모든 노력의 핵심에 새로운 신화들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뿌리신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화룡의 연구가 북한의 뿌리신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화룡(2000)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들려준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근본적인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북한의 네 가지 신화라고 설명했다. 그 네 가지 신화는 국가의 토대에 관한 신화, 한국 전쟁에 관한 신화, 지상 천국에 관한 신화, 통일에 관한 신화이다(한화룡, 1995: 12). 그 신화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국가적 토대에 관한 신화는 김일성에 관한 이야기이다(한화룡, 1995: 12).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시대 때에 일본에 대항하여 게릴라 항쟁에 참여했던 혁명가로서의 삶과, 인민의 존경하고 친애하

는 지도자로서의 남은 삶과 활동에 관한 김일성의 일대기가 기록되었고, 북한 주민들에게 들려졌으며 가르쳐졌다. 그 이야기들이 김일성을 단지 국가적 혁명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했던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이라 믿어졌다.

두 번째 신화는 한국전쟁에 관한 것이다(한화룡, 2005: 23). 남한 사람들과 세계의 다른 민족들은 대부분 한국 전쟁이 북한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믿지만,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 남한의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에 의해서 부추겨졌다고 믿고 있다(1995: 23). 북한 정권은 한국 전쟁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의 기원을 기록한 역사를 왜곡했고, 전쟁 시 미국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여성들을 강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전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주입했다(1995: 23).

세 번째 신화는 지상천국에 관한 것이다(한화룡, 1995: 28). 이 신화에서 북한의 현재와 미래는 지상 천국으로 묘사되고, 남한은 미국의 착취로 고갈되고 억압된 거지의 나라로 그려지며,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을 부패한 나라들로 표현된다. 지상 천국으로서의 북한의 모습은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발전의 절정에 있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북한에게는 실현될 희망찬 미래로 여겨졌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한에 대한 그러한 신화의 내용을 믿었다. 북한에 들어오는 남한의 방문객들에 대해 북한 사회가 보이는 동정은 그들이 남한 사람이 실제로 굶주리고 있고, 미국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다(1995: 29). 그들은 또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 뿐 아니라 도둑과, 성폭력범들과, 강도들로 가득 찬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도 믿고 있었다(1995, 32-33).

네 번째 신화는 통일에 대한 신화이다(한화룡, 1995, 32-33). 한화룡은 통일신화가 앞선 세 신화들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한다(1995, 35). 앞선 신화들을 통해 내면화된 믿음, 곧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남한 정부에 의해 착취당해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 자매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국가적 꿈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1995, 35).

거대담론으로서의 신화가 혹은 세계관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북한의 네 가지 신화도 그러한 부분들을 말해준다. 그들이 보는 세상의 문제점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로 인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침체와 고립도 이들로 인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몰락이며, 남한을 그러한 영향권으로부터 행방시키는 것이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하고,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사상교육과 교화를 통한 공산주의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인간개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한화룡이 발견한 북한의 4대 신화는 탈북인들과 나눈 면담의 내용 중에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굶어 죽어도 한 번도 윗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우리가 미국놈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미국놈들 몰아내고 통일해야 된다는 진짜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과 남한과의 관계를 떠나서, 북한이 주체사상으로 외면화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만들어낸 객관적인 실재 혹은 상징적 우주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있고, 살아갈만한 세상으로 믿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말을 더 인용해 보면,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당의 유일사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신봉자이고(웃음).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

인가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문화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오염되지 않았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성문화고 결혼문화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회에 헌신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북한은 잘 가르쳐줘요.” 이러한 탈북인들 중 일부는 중국에 나와서 그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상징적 우주가 무너지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치와 준거, 목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북한의 경제는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데도 실패했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부패가 만연한 것을 보고 있다. 지상낙원은 환상이나 실현되지 않은 꿈으로 남겨졌다. 남한을 포함하는 북한 외부의 세계의 삶과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나 외국의 지원기관들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그들의 네 가지 뿌리 신화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들이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설득력(plausibility)을 잃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손금을 보거나, 부적을 사용하거나 사머니즘적인 의식들과 같은 민속 종교적인 행위와의 참여가 그리 낮은 것만은 아니다. 뿌리 신화가 흔들리면서, 위와 같은 전근대적 뿌리신화들의 부흥양상이 존재하는지, 시장경제가 일부 도입되고, 돈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되고, 부패도 증가하는 변화 속에서 근대의 진보와 경쟁의 신화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일상으로부터 어떠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뿌리신화가 포스트모던과 세계화와 관련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뿌리없음, 방향성의 상실의 이야기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IV. 결론

모든 연구가 연구자를 주된 도구로 하지만, 특히 북한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이데올로기나 연구의 대상과의 관계와 포지셔닝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 북한에 대한 연구들을 읽고서는 북한의 체제만이 아니라 주민과 문화에 대한 획일적인 부정적 평가들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느낌과 함께 불편함을 토로했던 한 탈북인과의 대화를 기억한다. 북한의 세계관에 대한 연구는 Guba와 Lincoln이 제시하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이 연구의 대상이나 피면접자로가 아니라 참여자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자와 함께 발견한 바를 해석하는 형태의 질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적어도 탈북인들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내용의 타당성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전의 주민들의 세계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북한 정권의 기만이나 체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깨달음과 분노와 더불어, 일부 탈북인들은 과거 그들이 북한정권을 통해 내면화했던 이상적인 세계와 사회질서가 어떤 것이며, 무엇이 옳고 그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부분적으로라도 여전히 승인하며, 기억하며, 추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오늘 그들의 행동이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시장경제적 사고방식에 동화되고 있다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과거 좋은 날에 대한 막연한 추억이나,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이나 편견 그리고 스트레스에 밀려 주변화되어 상상속의 북한의 사회와 문화, 정체성을 단지 낭만적으로 그리워하는 것이라 해석하는데서 멈추기는 어렵다. 북한의 문화와 가치, 세계관의 주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계속적 노력과 더불어, 이들의 세계관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차원 중에 긍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affirming and challenging)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익숙하고 호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고,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도전하고, 대면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교육하고, 섬겨야 한다(Keller, 2012: 119).

북한 주민들과 탈북인들을 위한 선교와 교육을 고려할 때에 기억해야 할 점은, 이들은 과거에 어느 정도 통합되고, 일관성있고, 설득력있다고 믿었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안에 세계가 어떠하다는 서술적 차원도 있었지만, 어떠한가 한다는 평가적 차원도 있었고, 그 안에서 회로애락을 느끼며, 그들의 삶의 어두움 부분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받으며, 그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며 살아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상의 변화들로 더불어서 북한 사회는 그 세계관이 유지될 수 있는 설득력 혹은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를 잃어가고 있다. 신문에서와 교회에서도 북한에 잠입하고 유행하고 있는 한류 문화가 그러한 상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르바 던(Marva Dawn)이 언급한 체코의 벨벳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평행 혹은 대안 사회(parallel society)는 한류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⁴⁾ 탈북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남한 사회의 뿌리신화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타락·구속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될 때 가능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과 정체성과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엇이든 말하는 지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내면화하게 될 때에 가능하다.

참고문헌

- 김기봉 (2010).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한울아카데미. 108-130.
- 김병로 (2010). “북한의 급변사태와 이념적 변화 가능성 및 대응전략.”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주최 “10년 후의 북한, 주체이념과 사회문화는 어떻게 변할까? 1-13.
- 김태근 (1994). “북한주민의 가치체계와 저항적 행위의 표출가능성.” 고려사회학논집. 8. 155-175
- 김혜영 (2000). “남·북한 가족문화의 비교연구.” 사회와 문학. 12(1). 1-15
- 민무숙·안채희 (2001). 북한의 여성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박순성·고유환·홍민 (2010). “북한 일상생활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한울아카데미. 159-199.
- 유은희 (2012).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신학교육 커리큘럼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32. 1-36.
- 이민영 (2009).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부부의 갈등과 타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

4) 마르바 던이 그의 책에서 체코 공화국의 극작가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이 왜 “벨벳 혁명”은 성공적인 무폭력적 혁명이었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평행 사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행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회곡들을 지었고, 우리의 노래들을 불렀으며, 우리의 시들을 쓰기를 우리가 그 진리를 매우 잘 알아서 프라하(Prague)의 거리들에 나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했습니다”(Dawn, 1997: 48-49).

- 복지질적연구. 3(2). 91-121.
- 장영철. “일상에서보물찾기: 일상생활의 사회학.”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한올아카데미. 131-156.
-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1997). 북한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 145-161.
- 조정아. “북한 교육일상연구.”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한올아카데미. 397-432.
- Armstrong, C. K. (2003).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Belke, T. J. (1999). *Juche: A Christian study of North Korea's State Religion*. Bartlesville, OK: Living Sacrifice Book Company.
- Berger, P. L. & T. Luckmann (1966).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Doubleday.
- Cumings, Bruce. 2004.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New Press.
- Dawn, M. (1997). *Is It a Lost Cause?* Grand Rapids, Michigan: Wi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Guba, E. G. & Y. S. Lincoln.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ed.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London: Sage.
- Han, H. Y. (1995). *Developing a Mission Strategy for North Korea: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rough Four Myths*. Seoul: IVP.
- Hiebert, P. (2010).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서울: 복있는 사람.
- Hofstede, Geert H, and Gert Jan Hofstede. 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 Hunter, H. L. (1999). *Kim Il-song's North Korea*. Westport, CO: Praeger.
- Keller, Timothy (2012). *Center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 Kim, Il Sung. 1973. *On the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of Socialist Pedagogy in Education*. Pyongyang, North Korea: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Kim, Il Sung (1979). *On Socialist Pedagogy*. Pyongyang, North Korea: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Kim, Jong Il (1984). *On Correctly Understanding the Originality of Kimilsungism: Talk to theoretical propagandists of the Party, October 2, 1976*. Pyongyang, North Korea: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Kim, Jong Il (1985). *On the Juche Idea of Our Party*. Pyongyang, North Korea: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Lee, H. (2001). *North Korea: A Strange Socialist Fortress*. Westport, CO: Praeger.
- Mezirow, J. (2009). *Transformative Learning in Practice: Insights from Community, Workplace, and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Oh, K. D. & R. C. Hassig. 2000.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Opler, M. (1945). Themes as Dynamic Forces in Cul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1. 198-206.
- Park, H. S.(2002). *North Korea: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Boulder, CO: Lynne Rienner.
- Trompenaars, F. & C. Hampden (1997). *Riding the Waves of Culture*. New York: NY: McGraw-Hill.
- Yoo, E. H. (2012). Learning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Light of Cultural Frames of Reference, Social Positioning, and Identity 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Theological Education in South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s. Deerfield, IL: Trinity International Univeristy.

“북한주민의 세계관 연구: 폴 히버트의 세계관 모델의 적용”에 대한 논평

송영섭 박사 / 수영로교회 북한선교 담당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서론

세계관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이야기이다. 세계관은 사회변동에 영향을 받아 늘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이야기의 내용이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는 것이고 세상이 바뀐다. 결국 세계관은 끊임없이 세상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바뀌게 되어 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실재를 더 잘 설명하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바뀌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유은희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 속에 내포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이 무엇이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불균형과 부조화된 세계관을 향해 성경적인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세계관을 호소할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논문 요약

유은희 교수의 논문은 선교사이면서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가 언급하고 있는 세계관의 인지적 (cognitive), 정서적 (affective), 평가적 (evaluative)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의 세계관을 분석한 탁월한 글이다. 폴 히버트는 세계관을 “한 집단이 실제의 본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본적인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이며,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참되고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우주상”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듯이 히버트 세계관 안에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폴 히버트의 모델은 세계관의 유동성과 통시성을 고찰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먼저, 인지적 전제들은 실재에 대한 타당성 구조 (plausibility structure)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통해 형성된 타당성 구조는 미래지향적 시간관, 폐쇄적인 사고방식, 사회적 존재, 흑백논리와 이중적 잣대, 기계론적 세계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각각의 타당성 구조들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은 북한주민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둘째, 정서적 주제들은 아름다움, 추함과 같은 미학과 예술적 표현장식에 영향을 준다.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정서적인 측면을 북한사회가 통제하고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애국심에 기초한 자긍심과 반제국주의 정서에 기초한 증오심도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직 생활 속에서 살지만 일상 속에서 희망, 재미들을 가지고 살기도 한다.

셋째, 평가적인 주제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행동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런 평가적인 주제들 속에서는 철저한 사회적 계층화,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남녀차별, 신화들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증거하고 왜 성경적 가치관이 요구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 유은희 교수의 논문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의 세계관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비평

논문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 폴 히버트의 세계관 모델을 분석틀로 북한 주민의 세계관을 분석했다는 점은 매우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논문의 목적에 좀더 초점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북한 주민 세계관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이며 통합적인 진술이 필요하다. 폴 히버트의 세계관 분석 모델은 “북한 주민들의 내면과 세계관의 유동성, 통시성을 보다 잘 관찰할 수 있는 틀을 제시 해 주고 있다” 고 논의의 시작에서 밝힌다. 고난의 행군을 시대구분의 중요한 사건으로 삼고 있다. 북한 주민 세계관 변화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건을 간략하게 다룬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이 행군이 북한 주민의 세계관, 즉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을 어떻게 강화, 변질, 대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폴 히버트는 세계관을 하나의 고정된 관념으로 보지 않는다. 세계관에 내포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전제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유은희 교수의 논문은 시간이 멈춘 분석내용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집단주의가 사회적 규범이 된다” 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북한 사회의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정치적이고 형식적인 양태로만 존재하게 되는 사회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고난의 행군이란 시기이다. 또한 자긍심과 증오와 같은 감정도 어떤 방식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사회적 변동에 따른 분석이 아쉽다. 결국 다양한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적 변동과 관련되어 형성되고 발전되고 강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 북한 주민의 세계관을 유동적이면서 통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의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라는 책을 추천한다. 타당성 구조(plausibility structure)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결론

이 논문은 북한 주민의 세계관 이해와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연구하는데 한국에 있는 26,000명의 탈북민들은 살아 있는 텍스트(text)이다. 유은희 교수도 언급하고 있듯이 질적 연구를 통해 더욱 통시적인 세계관 연구가 이루어짐으로 통일 시대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향한 진지한 여행으로 인도한 유은희 교수의 귀한 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